

“주여 우릴 용서하소서, 북한 땅에 부흥과 회복을 주소서!”

평양대부흥 114주년 기념 예배, LA에서 진행



평양대부흥 114주년 기념 예배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김영구 목사

“주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안일함에 빠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 민족을 구하는데 소홀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랜 황무지와 같은 북한 땅에 부흥과 회복을 주옵소서.”

평양대부흥 114주년 기념 예배가 지난 14일,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진행됐다.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구(이하세기모, 지부장 김영구 목사)와 미주한인재단LA(지부장 이병만)가 주최한 예배에서는 114년 전 평양대부흥의 회개와 같은 통회와 각성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참석자들은 일상화된 신앙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지난날을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보다 물질과 정욕의 우상에 빠졌던 죄를 참회했다.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돈과 명예를 중시한 세속적 가치관을 심어줬음을 회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유를 억압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김영구 목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무지했던 조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양대부흥을 이뤄주셨다. 그동안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이 배출됐고 선교 강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며 “평양의 옛 장대현교회의 자리에는 김일성 동상이 들어섰고, 북한의 형제들은 억압과 탄압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가 수적으로 많아졌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김 목사는 이어 “미주 한인교회가 풍요로운 삶과 사치에 젖어 전 세계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자”며 “이 시대의 문화와 향락에서 벗어나 선

교적 사명을 가진 디아스포라로서 복음 전파와 북한의 자유와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힘쓰자”라고 강조했다.

이병만 장로는 “1903년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의 선조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고, 뒷편 안 되는 소득을 모아 임시정부 수립에 힘을 보탰다”며 “미주 한인들은 우리 선조들의 이민 초기 역사를 뿌리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차세대에 한민족의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배와 기념 한기형 목사(세기모 고문)가 “성령을 받으라”(요한20:21-2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그레이스 송 권사(미주 3.1여성 동지회장)가 회개기도문을 낭독했다. 또 김영구 목사, 이철민 목사, 조선환 장로, 공선화 선교사가 자복하는 회개기도를 했다.

김동욱 기자

117대 미 의회 ‘88%는 기독교인’...개신교 신자는 65%

117대 미국 의회 의원 중 88%가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3일 제117대 미국 의회 의원 531명의 종교를 분석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의회 의원 중 468명(88%)은 기독교인이며, 그 중 개신교 신자는 65%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국민의 65%가 기독교 신자이며, 그 중 55%가 개신교인임을 감안하면 평균보다 높다. 단일 교파로는 침례교 신자가 66

명(12.4%)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미국인 통계에서 침례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다. 타 개신교 교단에는 감리교 35명, 성공회 26명, 장로교 24명, 루터교 22명, 비종교 교단 12명의 신자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 미국인들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퓨 리서치는 설명한다. 가톨릭 신자인 의원은 158명으로 전체 의회의 29.8%에 해당한다. 미국 인구 중에 가톨릭 신자가 20%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그 외에 정교회 7명, 몰몬교가 9명이다.

기타 종교로는 북교 기독교파(0.8%), 회중 교회파(0.6%), 이슬람교(0.6%), 유니테리언 보편주의(0.6%), 오순절교파(0.4%), 그리스도 재림교파(0.4%), 힌두교(0.4%), 불교(0.4%), 개혁신교(0.2%), 경건파(0.2%) 순이다. 무교인 의원으로는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아리조나주)과 자신을 인본주의자라고 밝힌 제러드 허프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이 유일하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116대 미 의

회에 비해 전체 기독교인의 수는 감소했으며, 전체 개신교 신자는 1명이 늘었다. 또 ‘불특정 또는 기타’ 개신교 신자는 16명, 북교 기독교파는 3명이 증가했고, 감리교 신자는 7명, 침례교 6명, 루터교 4명이 감소했다. 의회의 가톨릭 신자 수는 163명에서 158명으로 감소했으며, 몰몬교인 수도 10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또한 정교회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었으며, 유대교와 힌두교는 각각 1명씩 감소했다. 하원의 종교적 구성은 상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독교인은 하원이 88.5%, 상원이 86.7%였으며

유대교인은 상원이 8.2%, 하원이 5.8%로 상원이 더 높았다. 상원에는 정교회를 비롯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니테리언 보편주의 신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별 종교 구성으로는 공화당원은 98.9%, 민주당원은 77.8%가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했다. 그 중 유대교인은 민주당원(11.5%)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공화당원은 0.8%에 그쳤다. 그밖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니테리언 보편주의자, 무교인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몰몬교인 의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나타났다. 강연숙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2021 HAPPY NEW YEAR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한기흥 담임목사

신년축복성회

"인생역전을 이루라!"

LIVE www.gracemi.com
일시: 2021.1.21(목)~24(주일)
목 7:30pm, 금 5:30am, 7:30pm
토요일 6:00am, 7:30pm
주일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강사: 김병삼 목사(분당만나교회 담임)
은혜한인교회 본당(온라인예배)

한기흥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오전 08:00(주 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널드	오후 12:00, 9:00(주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널드	오후 04:30(화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8:00(화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전역 CH 668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3:3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5:30(금요일)
미주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TV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Radio Seoul AM 1650	오전 06:30(토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4:00(토요일)
JSTV 미국전역 CH 668	오전 04:0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B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민주평통LA, 2032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및 평화통일 기원



민주평통LA 신년 기도회에서 설교하는 송정명 목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의회(회장 에드워드 구)는 지난 14일 LA 지역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남·북한 평화통일 및 2032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한 신년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

치를 간절히 기원했고, 한미 외교 관계 증진과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이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시편 121편 2-8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 운동본부대표)는 “기독교 단체가 아닌 사회 단체에서 한 해의 시작을 기도회로 연다는 것에 큰

감동이 된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목사는 “코로나 여파로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는 모두가 되자”고 독려했다.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신인문학상, 시 부문 당선자 발표

카라 영 이 집사, 에스더 한 전도사, 김종용 목사 당선



좌부터 카라 영 리 집사, 에스더 한 전도사, 김종용 목사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회장 고영준 목사)는 제23회 기독교문신인문학상 시부문 당선자를 발표했다. 당선자로는 카라 영 리 집사, 에

스더 한 전도사, 김종용 목사가 선정됐으며, 심사는 최선호 목사, 김신웅 장로, 임영호 목사가 맡았다. 신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한편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는 매월 월례회를 통해 문학수업을 갖고 시, 수필, 독후감 등을 읽고 쓰며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한인 이민 가정 자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월 2일 (화) 오전 10시반 -11시반	2월 9일 (화) 오전 10시반 -11시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자녀와의 관계 갈등
2월 16일 (화) 오전 10시반 -11시반	2월 23일 (화) 오전 10시반 -11시반
아동 우울증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자녀 교육

Zoom 링크: <https://tinyurl.com/dearsusan>

한인가정상담소가 자녀들의 마음건강, 심리 궁극증을 풀어 주는 부모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의 디어 수잔(Dear Susan) 세미나에서는 ‘아이야, 너 때문에 행복해’ 시리즈로 2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오전10시반부터 11시반까지 1시간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주제는 2월 2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9일 자녀와의 관계 갈등, 16일 아동 청소년 우울증, 23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자녀 교육이다.

지난 40여년간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의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심리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통해 부모님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민자 부모님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할 예정이다.

수잔 정 박사는 “이민가정에서는 개인의 독립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와 서로 돕고 기댈 수 있는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쉽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녀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며 전했다.

캐서린 엮 소장은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만날 기회가 적은 한인분들께 좋은 상담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세미나를 열어 많은 이민자 부모님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줌(Zoom)미팅으로 무료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http://tinyurl.com/dearsusan> 에서 사전등록해야 줌 링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213-235-4848 혹은 mlee@kfamla.org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수잔 정 박사는 일반 정신과 및 소아 정신과 전문의로 연세대의대를 졸업하고 1981년 미국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캘리포니아 카이저 종합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35년근무한 뒤 지난해 퇴직 후 현재 한인가정상담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진료하고 있다.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미주장신대 동문회, 지역사회에 이웃 사랑 실천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박사) 동문회(동문회장 박종희목사)는 지난 11일 미주장신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사랑의 선물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회는 미주장신 동문을 포함해 주변의 이웃 100명에게 쌀 20파운드 한 포와 조미김 한 박스를 선물했다.

박종희 목사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문과 이웃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참여가 더욱 확장되어 더불어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정

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장신 동문회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동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zoom을 통한 만남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첫번째 온라인 동문 모임은 오는 1월 17일(주일) 오후 6시30분(서부 시간)에 갖는다.

박종희 목사는 동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동문이 zoom을 통해 교제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310)508-2733 또는 이메일, mylord4eva@hotmail.com 박종희 목사



미주장신대 동문회가 드라이브 스루로 선물을 나누고 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같이 날아오르자!”

기쁜우리교회 온라인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성황리 개최



기쁜우리교회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지난 4부터 9일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같이(사 40:31)”라는 주제로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했다.

신년기도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매일 새벽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김경진 목사는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여정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가축하리만큼 훈련시켜 성숙시키는 것과 흡사하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매일 말씀으로 무장해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가듯 비상하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진 목사는 새해 목회 방향을 △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교회 목회 강화 △ 찾아가는 목회 활성화 △디지털 콘텐츠 개발로 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성도들의 양육과 전도, 교회 공동체성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김 목사는 “올해 표어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독수리처럼 날아

오르자”로 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해로 삼기로 했다. 이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의 축복”이라며 “현실의 힘든 풍파를 전한시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더 힘차게 글라이딩하는 역전적 기회로 만드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필라안디옥교회, 팬데믹 중에도 총 27개 선교팀 결성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가 8일부터 12일까지 신년축복성회 및 제 23차 세계선교사명자 대회를 열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총 27개의 선교팀을 결성했다.

“기쁜 소식의 전파자로 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필라안디옥교회에 소속된 다섯 교회인 한어교회, 영어교회, 스페니쉬 교회, 다민족교회, 시티교회와 차세대 교육부가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한어교회 선교대회 주강사로 섬긴 호성기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서 부르받았다”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역설했다.

영어교회와 스페니쉬 교회, 다민족 교회와 시티교회는, 각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선교

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선교지의 소식을 공유했고, 각 선교지를 위해 기도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안디옥 스페니쉬 교회에서 10년 동안 ‘here and now’ 선교사로 섬긴 김종상 안수집사와 이은송 권사를 스페니쉬 교회 1호 중남미 교회개척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감동적인 시간도 가졌다.

올해는 직접 선교지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다섯교회 성도들은 국내의 17개 선교팀과 ‘Here & Now’ 10개 선교팀 등 총 27개의 선교팀을 결성했다. 각 선교팀은 선교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온라인 기도회를 갖고, 기도회에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실제적인 필요를 선교 헌금을 통해 채울 예정이다.

김대원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의만하니
있었다

굶주림
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목사(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현목사(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선배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교회), 신정민목사(복음선배 대표),
유관목사(홍익교회),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판권자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련 빛은 그로 의만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신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찬가로 불리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율령이다.

* 책크라우드: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달려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www.marhlaw.com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은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녀는 분야 보다는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辯護
변호

實力
실력

精誠
정성

責任
책임

信賴
신뢰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별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겨림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90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5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순교의 땅에서 부는 부흥운동(2)”

지난주 칼럼을 읽은 지인이 필자에게 연락을 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신학교와 교회당을 건축하면 그 건물의 명칭은 누구로 하느냐를 물었다. 이윤인목 멕시코에서 건축한 건물들의 명칭을 선교사 개인에게 두었다가 후에 문제가 되는 일들을 많이 보았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사실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게 되면 현지인들에 대한 개신교와 선교사들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게 되기 마련이다. 우리 신학교의 개척자인 임원석 선교사 내외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초기부터 잘 대비하였다. 신학교의 이름부터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으로 하여 공식력 있는 멕시코 현지인 민족 장로교단 산하의 학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한인 선교사 두 가정이 각각의 전문 사역을 담당하여 견실하게 학교를 이끌어 왔다. 여기에 필자가 멕시코 칼리 본교의 학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필자의 가정이 임 선교사 부부의 사역을 인수받게 되었고, 이제 임 선교사 가정은 남부 치아파스에 세워지는 대학원 및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지역교회 순방 및 격려와 지속적인 교회 개척 사역과 목회자 연장 교육원을 통한 목회자 훈련 사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다.

남부 치아파스는 역사적으로 선교 불모지였던 곳이다. 그곳에 개신교회들이 개척되었고 계속 부흥해 가고 있다. 멕시코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정책은 역시 현지인 교회 지도자 발굴과 양성 그리고 파송이다.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교단 산하의 공식 신학교”인 것이다.

3 에이커의 학교 부지 구입과 건축비 일체를 한국 장로교단(통합) 소속 노회의 교회가 담당하면서 재단 이사회를 한국 교단 노회가 구성하고 학교의 모든 부동산의 명칭은 멕시코 장로교단으로 법적 인가를 다 받고 학교 운영을 하였다. 남부 치아파스 지역의 70여 개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하면 곧바로 그 교회 지역 노회에 모든 교회의 재산권을 헌납하였다. 건축에 대한 신뢰감을 얻었기에 여러 후원교회들이 70개에 이르는 예배당 건축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9월 학기가 시작되면서 60명의 학부 학생 중(코로나 영향으로 치아파스에서 중 동 영상 강의로 듣는 학생 7명 제외) 53명의 학생들을 일대일로 면담하였다. 그중 4명의 학생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을 훈련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열방으로 나가 복음 증거자가 되겠다 했다. 이제 멕시코에서 훈련받은 멕시코 세계 선교사들이 우리 한인 선교사들과 열방 각국에서 동역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필자의 꿈이기도 하다.

우리 신학교에는 또 한 가정의 30년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 가정이 있다. 여호수아/헬레나한 선교사 부부이다. 이분들은 볼리비아 신학교 사역을 10년 섬기다가 약 20년 전 멕시코 칼리 신학교 교수로 부임해 왔다. 교단에서 신학교와 히브리어 및 헬라어 강의를 맡아 사역을 한다. 부인 선교사는 교회음악과 교수로 주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는 여학생들이 교회로 돌아가 성가대 인도, 지휘 및 피아노 반주 등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양육하고 있다.

우리 신학교의 교화(꽃)가 있다. 오조피오라는 사막의 선인장과에 속한 무릎 정도 오는 작은 나무다. 일 년 내내 마른 줄기로 있다가 일 년에 몇 주간 어느 날 내린 이슬을 맞고 붉은 꽃을 피운다. 하나님께서 시골 치아파스의 청년들을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우실 거룩한 꿈을 우리 모두는 꾸고 있다.(계속)

지난 20년간 학장을 담당한 임 선교사는 교단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입학생 동원, 후원교회 관리, 남부 지역 교회 지도자 훈련 등을 맡았고, 부인 임벨리나 선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식사, 교정 안에서의 학생 기숙사 등의 사역을 전담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가말리엘 문하생”

다소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고 탁월한 대학 도시였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안성맞춤인 교육 도시였지만 바울의 부모는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우게 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성경에는 두 사람의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로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다른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34절)과 22장(3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성장했다고 자랑합니다.

사도행전에 두 번 언급되는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공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전승과 역사책이 전하는 가말리엘은 대 랍비(Arch-Rabbi) 혹은 최고의 랍비라는 의미의 ‘라반(Rabban)’이라는 칭호를 가진 최초의 랍비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를 창시한 바리새인 지도자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은 탁월한 랍비였습니다. 미쉬나와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힐렐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 교육을 받고 성장한 후에 40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당시 권위 있는 삼마이 학파의 두 랍비-셰마이아(Shemaiah)와 아브탈리온(Abtalion)-에게 교육을 받고 힐렐 학파를 창시합니다.

120년을 살았던 힐렐은 모세의 삶과 유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40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80세까지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수련을 하고, 힐렐은 랍비학교에서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모세는 민족의 출애굽을 인도하고, 힐렐은 민족 교육에 헌신합니다. 힐렐은 당대에 모세가 누리는 영광과 권위를 누리 지도자입니다.

힐렐은 파격적인 여유와 관용으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힐렐은 약자들의 배려하는데 탁월했습

니다. 예컨대 남편과 사별한 여인의 재혼을 파격적으로 용이하게 했고, 율법적인 안식일 적용과 지나치게 엄격한 심일조를 반대했습니다. 힐렐은 상대인 삼마이 학파에 비해서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학파였습니다. 요컨대 힐렐은 진보적이고 인권의식이 강한 랍비였습니다. 훗날 가말리엘도 힐렐 학파의 최고 랍비로 활동합니다.

역사 자료는 힐렐은 산헤드린 회장이 나시(Nasi)라고 전합니다. 미쉬나는 ‘힐렐이 죽을 때 율법의 영광도 끝났다’고 전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전무후무한 힐렐의 권위와 영광은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가말리엘만이 힐렐의 영광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가말리엘도 ‘나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힐렐의 아들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시몬’입니다. 역사 자료는 힐렐의 아들 시몬도 나시(Nasi), 즉 산헤드린 회장이 아주 잠시 맡은 후 사임하고 초야에 묻혀 조용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신약의 주석가들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경건한 사람 시몬’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리새인이요 존경받는 랍비였지만 아버지 시몬의 영향을 받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에게 유리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방교회 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바울, 스테반, 니고데모를 가르쳤고 말년에 자신도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가말리엘은 니고데모와 함께 스테반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드 다빈치는 ‘스테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이라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조세푸스는 가말리엘이 예루살렘 멸망 18년 전에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이 난파당한 때와 비슷한 시점입니다. 아람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탈굼(Talgum)의 저자였던 온켈로스(Onkelos)가 가말리엘의 제자였는데, 온켈로스가 왕의 장례식 수준의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했고, 최고의 스승 라반(Rabban) 가말리엘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가 조세푸스는 가말리엘과 가말리엘의 손자 시몬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특히 시몬은 훗날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로 자란 것은 섭리입니다. 가말리엘 제자 바울은 유대 사회 영향력과 융통성 있는 해석으로 초대교회 해외 선교를 주도합니다. 또 예루살렘 회의가 선교적 회의가 되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과 가말리엘의 영향으로 구약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의 새로운 구약해석의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와 자신의 설교에서 자신의 구약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약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와 다른 해석이 신약과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기독교론과 선교론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을 현대 학자들이 선교적 해석학(Missional Hermeneutic)이라 부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희,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칼빈의 교회론과 정치에 관한 교훈들

개혁주의 전통에서 본 교회의 정치적 책임 (1)



장 칼뱅(프랑스어: Jean Calvin, 1509년 7월 10일 ~ 1564년 5월 27일) © wikipedia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들과 의무들과 사명들 중에는 정부와 정치적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성경적인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교회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지난 날 개혁주의 전통에서 교회가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으며, 칼빈주의 정치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근대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공헌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중요 정치적 사상들과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정치 사회적 역할을 위한 대안마련에 시사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종교개혁은 가장 본질적으로 근대사회로의 발전이었으며, 전 세계 시민들의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디딤돌을 제공하였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이 발생한 이후로, 개신교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왕국들의 지배자들에게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시민전쟁을 감행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개신교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종교전쟁을 겪었다. 합스부르크

왕국(스페인과 오스트리아)과 개신교 제후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사이에 삼십 년 전쟁 (1618-1648)이 벌어졌고,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The Peace of Westphalia)으로 종결되었다. 개혁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입헌군주제가 견고해졌고, 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정착했으며, 마침내 네덜란드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기독교 정당의 이념을 내걸고 집권하여 시대의 과제를 감당해냈다.

1. 칼빈의 교회론과 정치에 관한 교훈들

필자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칼빈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당대 종교개혁자의 지도자들이, 루터와 츠빙글리를 비롯해서 서로 존경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입장을 무조건 답습하지 않고, 창조적인 기여를 남겼기 때문이다. 당대의 논쟁거리였던 삼관론에서도 칼빈은 루터의 공재설과 츠빙글리의 기별설에서 아쉬움을 발견하고, 독자적으로 성경적인 견해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루터와 츠빙글리와 달리, 칼빈은

교회가 세속 정부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는 성경적 진리를 확신한 제도로 정착시켰다. 동시에 칼빈은 교회 혹은 성직자가 세속 정치를 통괄하는 신정통치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nontheocratic). 루터가 작센주의 군주 프리드리히의 권위 아래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단독적인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칼빈은 파악하였다. 또한 츠빙글리가 사역했던 취리히에서도 시당국의 권위 아래서 교회의 모든 개혁적인 조치들이 허락을 받아야 하였다. 칼빈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완전히 개혁되려면 이런 세속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치권을 확보하고 스스로 갱신해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특히 칼빈은 스트라스부르 그에서 삼 년 동안 머물러 있던 시기에, 마틴 부셔가 제시한 교회자치권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실패를 목격했었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제네바에서는 교회의 독립권을 확고히 세우는 새로운 모델을 창조적으로 실현시켰다. 칼빈에게서 중요했던 점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각자의 자율권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칼빈이 일생동안 철저하게 노력하여 세우고자 했던 원칙은 세속정부로부터 개혁 교회의 독립성, 자치권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스위스 제네바는 국왕이나 제후들의 지배를 받지 않던 독립 자치도시로 성장했다. 칼빈의 목회방침에 영향을 받은 후에, 제네바는 시민들의 영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유일한 자치도시로 세워져 나갔다. 제네바와 같은 완벽한 신앙공동체로서의 도시건설을 꿈꾸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의 미국을 건설하였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은 채,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는 독립적인 권한을 당회가 확보하도록 최초로 개혁한 것은 결국 민주정치의 시초를 놓는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회자로서 칼빈은 교회를 향한 호소와는 달리, 시민정부의 정치와 의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와 조언과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이러한 입장은 칼빈주의 전통에서 연속적으로 계승되어서, 배자와 17세기 칼빈주의에서도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주장했다.

16세기의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 누구도 실현시키지 못했던 영향을 발휘한 칼

빈은 교회와 시정부와의 독립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정착시켰다. 그가 꿈꾸어 왔던 대로 교회의 독립권은 목회자 선발과 임명의 과정에서 완전한 자유를 인정받는 것이었고, 또한 성도들의 영적인 권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었다. 칼빈이 제출한 “제네바 교회의 법령”(Ordonnances Ecclésiastiques de l'Eglise De Genève)은 1541년 11월 7일, 200인 의회가 수정·통과했고, 시 총회에는 11월 20일 제출되었다. 이 교회 법령에서 칼빈이 주장한 두 가지 새로운 면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첫째, 칼빈의 정치적인 견해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교회의 자치권 확보였다. 그는 교회의 제도 자체를 신약성경의 초대 교회처럼 완전한 자유권을 가진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최초의 조치를 제네바에서 성공시켰다. 칼빈은 초대교부들의 시대를 근거로 해서, 교회의 독립적인 자치권을 옹호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제정하신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받아들여지면 되는 기관이다. 둘째, 권징의 시행을 교회가 완전히 넘겨받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시 행정 당국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결정에 따라서 시의 형벌로 보충해 주도록 요청하게 되었다.

칼빈의 성취와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을 비교해 보자. 외클라프다우스는 스위스의 바젤에서 사역하면서, 그토록 교회의 권징을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시행되어야 함을 역설했지만, 그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스트라스부르 그에서 부셔 역시 목사회가 약간의 부차적인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 받았으나,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기를 거부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의 결정을 수용하고 말았다. 루터나 츠빙글리는 이런 제도 자체를 아예 목표로 삼지도 않았었다. 바젤이나 베른이나 취리히에서나 그 어느 다른 스위스 자치도시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 제네바에서 일어났다.

칼빈은 세속 권세들이 교회를 다스릴 수 없으며,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서 교회는 처음부터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신했다. 어느 정도까지 교회가 이런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원리만큼은 인식되도록 칼빈은 남은 생애를 바쳐서 투쟁적으로 싸워서 교회의 존엄성을 인정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던 것이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목사의 안수와 성직 임명은 교회 자체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왕이나 교황이 성직 임명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오직 지역 교회가 자체 목사의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놀라운 개혁이었다. 제네바 시의회에서도 새로운 목사 후보를 먼저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칼빈의 주장은 목사회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지, 시의회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결원이 발생하면 목사회가 먼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심사하고, 목사들에 의해서 다수가 찬성하면 받아들일도록 하였다. 목사 안수에 일반 시민들의 결정 권한이 없도록 했으며, 1561년 교회법령에서는 시민들이 팔일 안에 항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로 안수 받은 목사는 시의회에서 맹세함으로써 완전히 임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의회는 목사회가 결정한 사람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칼빈의 정치적인 관점은 그의 『기독교강요』 마지막 부분에 서술되어 있고, 그 외에도 그의 주석들과 신학논문들에 담겨져 있다. 다른 종교개혁자들과는 달리, 제네바에서 사역한 까닭에, 칼빈은 교회와 국가가 모두 다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와 의무들을 인정할 권한이 있음을 새롭게 서술하였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독일에서 루터파 교회는 불합리한 정부의 행정에 대항하는 신학적인 정당성을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았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8-1000 Fax: (213)388-2332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Email: ad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 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트럼프 행정부가 이룬 종교 자유 승리, 차기 행정부가 이어갈 것”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을 앞둔 가운데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위원장은 “차기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종교 자유 승리를 이어갈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1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조 맨친(Joe Manchin) 버니지 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의 부인인 게이일 맨친(Gayle Manchin) 의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수위원회와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종교 자유에 있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맨친 의장은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가 자랑스럽다. 트럼프는 종교의 자유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그러할 것으로 믿는다. 종교 자유에 관한 유일한 정부 기구인 USCIRF의 노력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 종교의 자유를 감독하지 않는다.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가 자국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룬 종교 자유의 혁신 중 하나는

국제 종교 자유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길 바란다. 바이든 행정부가 USCIRF를 비롯해 종교 자유와 관련된 모든 단체들과 동역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개방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USCIRF에서 봉사하며 종교 자유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며 “남은 의원들도 USCIRF의 건전한 초당적 정신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동역의 비결은 개인적인 관계성이다. 위원회 구성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에 대해 대화하며 우정을 쌓는 것”이라고 했다.

맨친 의장은 2020년 위원회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가’ 목록에 있던 수단이 종교자유법을 개선하여 목록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인도네시아 등 종교 자유에 대한 기록이 좋지 않은 나라들도 가끔씩 대표자들을 우리에게 보내 관련 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게이일 맨친 의장. ©USCIRF

의를 해 왔다”면서 “수단의 새 정권은 확실히 여성들과 소수종교인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 나라의 법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새로운 도전을 경험했다고 한다. 맨친 의장은 “위원들은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종교 자유에 관한 현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또 일부 국가들은 종교 자유를 제한하기

스탄, 인도, 이집트의 인권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중국의 일부 사건들은 정부가 위구르 무슬림들에 대한 집단 학살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인도를 종교자유탄압 특별 관심국가에 포함시킬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맨친 의장은 “종교 자유를 위한 미국인들의 행동은 세계 반대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종교 박해 사례가 미국에서 널리 알려지면 해당 국가는 나쁜 평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된다. 미 의회 지도자들이 종교 자유를 위해 수감된 이들을 지원할 때 세계 지도자들도 관심을 기울인다”고 덧붙였다.

맨친 의장은 “신앙을 실천하는 데 위험에 처한 전 세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가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몫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이미 기자

美 오하이오 주지사, 원격 낙태 금지법에 서명

마이크 드웨인 미국 오하이오 주지사가 원격 낙태를 금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드웨인 주지사는 지난 9일 스티브 허프먼(Steve Huffman)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는 ‘SB 260’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약물을 처음 복용하는) 그 장소에 의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떤 의사도 임신부에게 개인적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약을 비치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라며 “이 조항의 어떤 것도 낙태할 권리를 만들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낙태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하이오주 친생명 단체인 ‘Right to Life’ 마이크 노니다키스(Mike Gonidakis)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생명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승리였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약물 낙태나 반드시 낙태가 이뤄져야 하는 한정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낙태할 권리에 대한 이 같은 침해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직접적인 자격 요건은, 특정 환자들이 낙태 치료를 포기 또는 연기하거나 자신과 자녀, 가족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많은 낙태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이 낙태 유도제를 조제하기 위해 원격 진료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기준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에는 값이 없어야 한다. 여성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유행병 이전에도, 낙태옹호자들은 의료 전문가들의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이 같은 약을 원격 투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연방 판사는 여성들이 집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처방 전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식약청의 규정을 유예했다.

미 지방법원 시어도어 추양 판사는 판결에서 이 규정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실제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약물 낙태나 반드시 낙태가 이뤄져야 하는 한정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낙태할 권리에 대한 이 같은 침해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직접적인 자격 요건은, 특정 환자들이 낙태 치료를 포기 또는 연기하거나 자신과 자녀, 가족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많은 낙태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생명운동가들은 원격 처방으로 낙태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해 왔다.

FDA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0년 미페렉스가 승인된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4명의 여성들이 이를 사용하다 사망했으며, 심각한 전신감염증(패혈증)에 걸린 사례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FDA는 “이 같은 부작용은 다른 약물의 동시 사용, 다른 의학적 또는 수술적 치료, 합병증,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임상 관리에 대한 정보 차이로 인해 확실히 미페렉스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이미 기자

프랭클린 그래함, 트럼프 탄핵 거부한 펜스 지지 “지금은 치유의 때”

조 바이든에 “대통령 탄핵 중단” 촉구하기도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대통령 탄핵을 거부한 펜스 부통령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젯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것이 국익이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펜스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펜스가 말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할 때이고 치유할 때”라고 덧붙이며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 준 펜스 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끔찍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의미한다.

그래함 목사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파멸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미국민의 30~40% 이상은 옳든 그르든, 지난 선거가 불공평했으며 그들이 자부심을 얻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하원이 이것(탄핵)을 중단하고 미국의 다른 필요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2일 페이스북에도 그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만한 증오를 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은 영적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자유의 창조자, 이 땅의 풍요를 주신 분에게서 등을 돌렸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볼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 있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증오로 채우진 말아달라”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요구하셨다”고 강조했다.

강연숙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사이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방송평생,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프랭클린 그래함, 탄핵 동참 공화당 의원 맹비난... “나라 분열시킬 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프랭클린 그래함 페이스북 캡처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민주당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에 가세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에 대해 맹비난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에 따르면, 그래함 목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낸시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원들과 합류한 10명의 공화당원들에게 수치심을 느낀다. 부끄럽다”면서 “그(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위해 그토록 한 일이 있는데도, 그렇게 빨리 등을 돌리고 배반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래함은 “내 평생에 그와 같은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다”며 트럼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낮은 세금과 실업률, 경제적인 안정, 중동 평화, 대 중국 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트럼프의 행적을 높이 평가했다.

또 “그는 중국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며 “지난 몇 달간 그의 중동 평화 구상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래함은 “그는 이전 대통령들에게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종교의 자유를 옹호해왔고, 이것은 모든 종교인에

게 중요하다”며 “또한 그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친생명적인 대통령이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나라를 더 분열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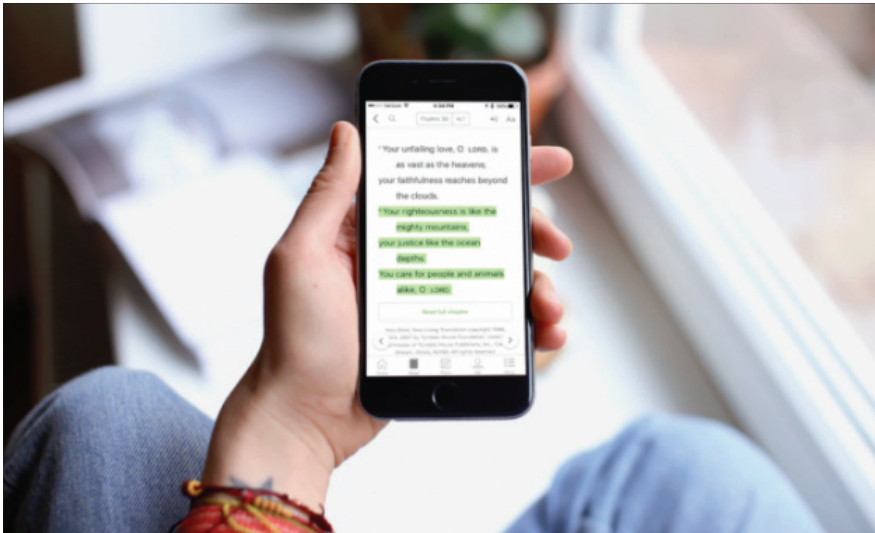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대통령이 말하고 한 일 중 일부는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며 “1월 6일은 그의 대통령 임기에서 가장 낮은 상태(low point)였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그가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저와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은 그가 약속한 플랫폼과 정책 때문에 그를 뽑았다”며 “나는 여전히 그들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취임한 날부터 그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들이 어찌 한 일은 우리 나라를 더욱 분열시킬 뿐”이라며 “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고, 그가 말한 통합을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카톨릭 단체 운영하는 성경공부 앱, 애플 팟캐스트 1위



유버전 성경앱, ©LifeChurch

성경 관련 팟캐스트가 뉴스와 해설 등 다른 주류 팟캐스트를 제치고 애플 팟캐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톨릭단체 ‘어센션 프리젠트’(Ascension Presents)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마이크 슈미츠와 함께하는 올해의 성경’(The Bible in a Year with Fr. Mike Schmitz)이 미국 내 성경공부 팟캐스트 1위를 기록했으며, 올 초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팟캐스트가 되었다.

이 팟캐스트는 인기 정치 해설가 벤 샤피로(Ben Shapiro)가 진행하는 뉴욕타임즈 팟캐스트 ‘더 데일리’(The Daily)와 조 로건의 팟캐스트 ‘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The Joe Rogan Experience)를 제쳤다.

해당 팟캐스트 진행자 마이크 슈미츠는 미네소타주 덜루스 교구에서 청년 사역을 맡고 있는 유명한 가톨릭 신부로 알려졌다.

25분 분량의 팟캐스트는 진행자가 성경을 읽어주고 해당되는 내용의 신학적·역사적 맥락을 공유한다.

이 팟캐스트는 지난 2020년 3개의 에피소드로 시작했으나, 공식적으로는 2021년 시작했다.

한편 D-Group(제자도 그룹)이 운영하는 또 다른 성경 기반 팟캐스트 역시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 목록 33위에 올랐다. ‘성경 개요’(The Bible Recap)라는 제목의 이 방송은 주로 성경 본문 자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약으로 구성되며 분량은 6분이다.

내셔널 리뷰 기자인 알렉산더 드생티스는 성경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뉴스보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의미 있고 영혼을 채우는 실재를 추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0년 유버전 성경앱 검색량은 80% 증가한 6억회에 달했다. 유버전 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가 41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이 가장 즐겨찾는 구절이자 가장 많이 공유된 구절로 나타났다.

유버전 앱은 “성경이 약 436억 장이 읽고 오디오 성경은 75억 장이 재생되어, 앱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전 세계적인 참여를 보였다”고 전했다.

CP는 “성경 읽기와 신앙을 기반으로 한 팟캐스트 청취의 증가는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이침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7:00)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2인2세를 책임지며, 이민이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언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에서 우회)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청년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예배(델리예배) (소매예배)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악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초,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만민부 지역 유일할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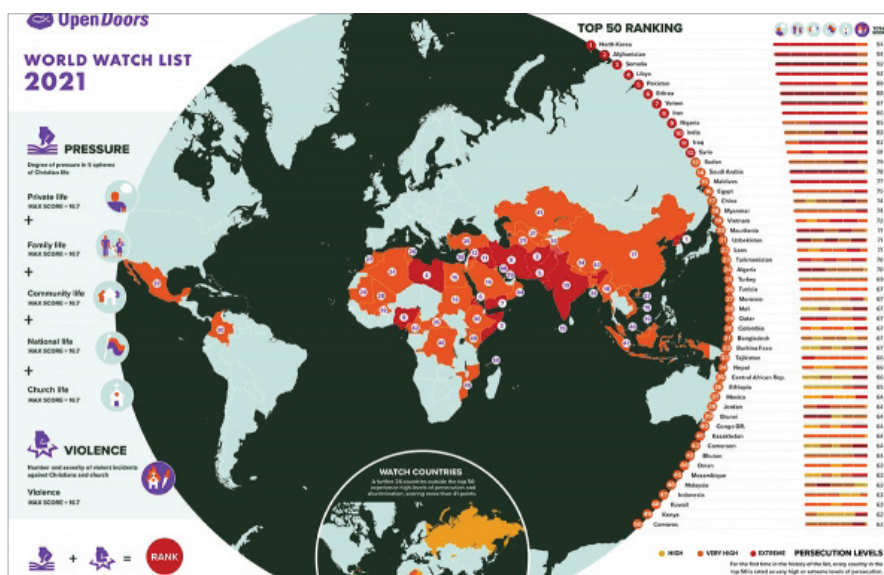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종교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북한, 20년째 전세계 기독교 박해국 1위



2021년 월드워치리스트(WWL) 지도 ©한국오픈도어

2020년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8명 중 1명이 극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았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이 기독교 박해의 촉매제로 작용해 기존의 억압을 강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오픈도어는 13일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인 2021년 월드워치리스트(WWL·World Watch List)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한국오픈도어는 “2020년 WWL 상위 50개국에서 3억4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받았다”며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8명 중 1명, 아프리카 기독교인 6명 중 1명, 아시아 기독교인 5명 중 2명, 라틴아메리카 기독교인 12명 중 1명이 매우 높거나 극단적인 수준으로 고통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 4,761건의 기독교인 사망 사건이 파악됐는데, 이는 전년도(2,983명)보다 60% 증가한 수치이며 사망자의 91%가 아프리카, 8%가 아시아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4,488개의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이 공격당했고, 4,277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구금·투옥됐으며 1,710명은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됐다. 이는 곧, 매일 평균적으로 13명의 기독교인이 죽임당하고, 12개의 교회 또는 기독교인 건물이 공격당하며,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구금·투옥됐으며, 5명의 기독교인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당한 것을 의미한다. 교회에 대한 공격은 77%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발생했고, 20%가 아프리카, 3%가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했다. 신앙으로 구금된 기독교인 수의 55%는 중국 등 아시아, 43%는 에리트레아 등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 신앙과 관련하여 납치된 기독교인은 90%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9%가 아시아에서 발생했다. 이 외에도 믿음을 이유로 강간 또는 성희롱(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49%,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49%)을 당하고, 비기독교인과의 강제결혼(파키스탄 등 아시아 72%, 아프리카 28%), 구타·살해 위협을 포함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75%, 인도 등 아시아 23%), 공격을 받은 기독교인의 집, 재산(아프리카 69%, 아시아 31%), 공격을 받은 기독교인의 상점, 사업체(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75%, 시리아 등 아시아 25%), 신앙과 관련하여 나라를 떠나도록 강요된 경우(아시아 42%, 아프리카 57%)가 보고됐다.

2021년 WWL 상위 12개국은 1위 북한, 2위 아프가니스탄, 3위 소말리아, 4위 리비아, 5위 파키스탄, 6위 에리트레아, 7위 예멘, 8위 이란, 9위 나이지리아, 10위 인도, 11위 이라크, 12위 시리아다.

북한은 20년째 가장 심각한 기독교 박해국으로 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지희 기자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i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국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밤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198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9
T. (818)935-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쁘고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고,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h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중 전도자 “사회에 해 끼쳤다” 명목으로 구금 돼



중국에서 한 거리 전도자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울해 첫 구금을 당했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이 13일 전했다. 한국 VOM의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의 거리 전도자 첸웬셴은 2021년 첫 번째 구금된 기독교인이다. 형양시 공안국 정상 지부가 발행한 문건에는 그와 그의 동료 조우룽이 새해 전야에 확성기와 전도지를 이용해 두 곳에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 한 거리 전도자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울해 첫 구금을 당했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이 13일 전했다. 한국 VOM의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의 거리 전도자 첸웬셴은 2021년 첫 번째 구금된 기독교인이다. 형양시 공안국 정상 지부가 발행한 문건에는 그와 그의 동료 조우룽이 새해 전야에 확성기와 전도지를 이용해 두 곳에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첸은 종종 “주님께 영광.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적힌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기간에도 첸은 행인들에게 마스크와 성경과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 경찰에 체포되면 미소지으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저항하지 않고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차에 연행되면,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경찰관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했다. 구금기간이 끝나 석방되면, 그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들을 축복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산당 정부 당국자들이 형양시 거리에서 계속 전도하면 다시 체포하여 구금하겠다고 계속 경고하고 위협하지만, 첸은 길거리 전도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언젠가 실형을 선고받고 해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한국 교회, 수도권 10% · 비수도권 20% 대면예배 가능



사랑의교회와 과거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사랑의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6일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10%(100석 이하는 10명), 비수도권은 20%의 인

원에서 현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외 소모임,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번 방역조치는 오는 18일 0시부터 적용된다. 김진영 기자

이만희 교주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지난 3월 기자회견 당시 이만희 씨 모습.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3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유죄,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씨는 신천지의 연수원 격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었다.

구체적으로, 먼저 재판부는 신천지 지파 관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신천지 규약 등에 의하면 개인에 대한 잔조금 전달은 금지되며 잔조금 등 모든 재산은 신천지 선교재산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교인들이 총회장 개인을 위해 현금을 하거나 후원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파장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역시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교회 돈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도 있다”며 “이에 교인들이 피고인 개인을 후원하기 위해 지급한 돈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평화의 궁전 관련 횡령 혐

의와 관련 “피고인은 신천지 돈으로 취득한 부지와 건물에 대해 피고인과 A(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등기를 했다”고 밝히고, “즉 자신의 부동산 취득을 위해 신천지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용도와 관계 없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더불어 “평화의 궁전 용도를 보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전임신고를 하고 1달에 최소 10일 이상 실제 거주하였던 점, 이에 반해 신천지 행사는 연 평균 10회도 열리지 않았던 점을 보면 신천지 연수원이 라기보다 피고인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과 시설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당국에 축소 보고함으로써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교주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진영 기자

김태영 목사 “폐쇄명령까지 받은 교회 있어 매우 참담”



김태영 목사

예장 통합 직전 총회장이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직전 공동대표회장으로서 지난해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된 교계의 입장을 방역 당국에 전달

하고 그들과 방역정책을 조율했던 김태영 목사(부산 백양로교회)가 최근 불만을 토로했다.

김 목사는 지난 11일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김문훈 대표회장 취임식에서 “전 세계가 1년 정도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세 번이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 방역 당국에서는 예배 강행, 예배 고수, 대면예배 고수, 교회발 집 단감염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용어로 교회가 마치 3차 유행의 근거지인 것처럼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구나 부산에서 대면예배를 하다가 고발당하거나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제한명령이 아니

라 폐쇄명령까지 받은 교회가 있어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예배당) 좌석 수의 20%로 제가 방역 당국과 조율한 것”이라며 “그러나 갑자기 2.5단계라고 하는 것이 새로이 생기면서 교회가 20명으로 제한되었다. 2단계가 20%의 좌석 수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2.5단계는 10% 정도라도 좌석 수의 단위 면적을 따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야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목사는 “(한교총 현 대표들이) 총리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한국교회 사정을 좀 대변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도 우리 교단 기관지에 글을 쓰고 제 나름 정부에 연락을 드렸다”고 했다. 김 목사는 최근 교단 기관지에 “한국교회가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3번씩이나 교회 문이 닫히면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썼다.

그는 또 최근 BTJ열방센터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실 정통 교회는 아니다.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도 작년에 그 단체에서 가입 신청을 했는데, 제가 NO라고 거절했다. 아직까지 여러 교단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예의주시하는 교단도 있기 때문에 NO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철년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한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점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세백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예배 오전 6:00
대학철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설기축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철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을 삼려 해공된 새 시대의 복음 사역의 새 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원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수요성령회 주일 11:00am
(유·초·중·고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요일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오후 7시
세백기도: 오전 6:00(화-금)
셀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아침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토) 세백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철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벌기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신하심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청년부 오전 11:30
KM대학원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에 오전 11:30(철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철년 영어)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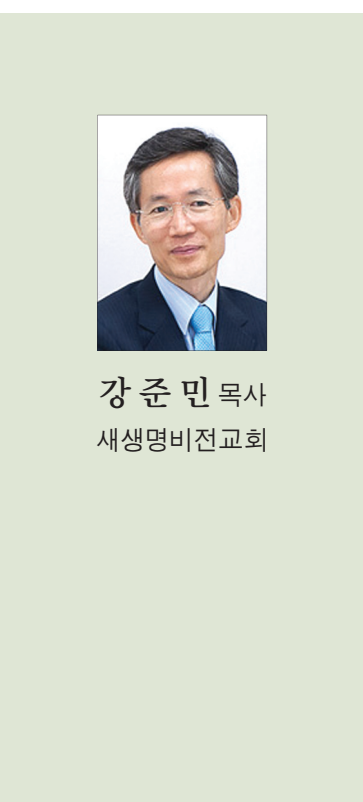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시간 관리에 서투른 분을 위해

시간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공평한 선물입니다. 시간만큼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누구나 시간의 중요성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을 잘 사용하는 분은 소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지냈다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지내면 안 됩니다. 정신없이 지냈다는 것은 생각 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지냈다는 것은 목표나 우선순위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성경은 거듭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막 13:33; 골 4:2). 또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한 때는 시간 관리가 서투르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면 조급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된 이유는 중요한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생각이 게을러 정신없이 지내다, 그만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조급하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한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조급하면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왜 조급하게 된 것일까요?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유부단에서 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목표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며 살게 됩니다. 게으름은 모든 죄가 자라는 모판입니다.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게으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

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마 25:26).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심어야 할 때에 심지 않았습니.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았습니.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를 했습니. 또한 맡겨준 달란트를 키우고 남겼습니(마 25:16). 시간 관리를 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따라 생활하십시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의미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측정이 가능한 목표여야 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마감기일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바다에 표류하는 배와 같이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따라 생활하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됩니다. C. S. 루이스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고 둘째 것은 그 다음에 밀쳐놓아야 한다. 둘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첫째와 둘째 모두를 잃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헨리 드러먼드는 “매일 그리스도의 존전에서 10분간만, 아니 2분만이라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은 온종일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R. A. 토레이는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으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으나 회심은 적으며, 활동은 많으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남의 일에 참견하는데 소모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정의나 공의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좋아하는 일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십시오. 스캇 펙의 말처럼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십시오. 자신이 좋아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제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 해를 보람 있게 살기 위해 시간을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마감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 자기 격리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대나무는 가느다란 굵기로 높이 곧게 치솟아 자라는데,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거나 꺾이지 않고 잘 버팁니다. 그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들이 옆으로 뿔뿔 튀어나와 있어서 보기에는 매끈한 대나무의 위용을 깎아 내릴지는 모르지만 나무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디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나무는 잠시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인 산과 들로 기름을 운반하는데 가는 도중 통이 깨어져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 때 한 사람이 대나무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기름통 옆 구리에 주름을 잡았더니 깨어지지 않고 기름을 잘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를 잡으니 강도가 4배, 두 개를 잡으니 16배 정도로 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매듭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줄을 길게 했을 때 매듭을 짓지 않으면 중간에 다 흐트러지지만, 매듭이 있으면 아무리 줄을 길게 해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7일 계속하여 일하는 사람보다 6일 일하고 하루를 확실히 안식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고 삶의 효율도 높습니다. 마디의 힘이고, 매듭의 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오히려 믿음의 힘, 하늘의 에너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LA 카운티는 미 전역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주민 3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이니, 주변의 직장 동료나 이웃 가족들 가운데도 양성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발적으로 자기 격리를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발적인 자기 격리가 우리를 더 높고 깊고 크게 만드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은 앞에서 형 에서가 절치부

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경계를 넘어오면 죽인다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압박강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자기 격리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름 붓고 축복하실 때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도 자발적인 자기 격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고독한 교제를 나누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죽음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리내며 성공적인 사역을 하므로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그 모여드는 사람들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고독한 교제를 이루려고 자발적인 자기 격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랬기에 앞에 놓인 환난과 결박을 이기고 더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자기 격리와 같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이룸으로 하늘의 에너지를 얻어서 대면의 시간이 올 때 참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광철 목사의 영성 개발 1

아름다운 영성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박광철 목사

이번 주부터는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영성” (spirituality)에 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려고 한다.

모든 종교에는 다양한 형태의 영성이 있으며, 종교에서 영성을 제거하면 일반 철학이나 사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성”에는 종교의 초자연적인 측면이 함축되어 있는데 특히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면이 많다. 그러므로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자신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조급한 시대에 산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잘 작동하고 있는데 새 컴퓨터가 왜 필요한가? 더 많은 기능과 더 빠른 속도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 새 스마트폰이 필요한가? 같은 이유에서이다.

요즘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느긋하게 기다리거나 참아 주기보다는 신속하게 해치우는 일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국수를 먹으려면 우선 밀가루 반죽을 해야 하고 큰 칼로 잘게 썰어서 끓는 물에 넣고 익혀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만 요즘엔 끓는 물만 넣고 약 3분만 기다리면 즉석 국수가 된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라면이 왜 인기가 있는가? 언제든지 손쉽게 빠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어떤 물건이나 행위의 본래적인 가치보다는 “쓸모가 있는가?”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

또한 이른 바 “행위 문화” (Doing Culture) 시대에는 모든 것이 그의 위치와 작업 능력으

로 판가름한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삶 전체가 어떠하든지 그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결과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업적은 종종 인격이나 성품과는 무관하게 여겨질 때가 많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보다 많은 또는 좋은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추세다. 그러나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인격과 삶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

왜 젊은 학생층 사이에 자살이 많은가?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공부만 하고 사회에 별로 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적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이유와 같다. 일방적인 투자만 해야 하고 교회에 경제적으로나 성장에 크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노년층의 자살이 많은가? 그들은 대부분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효용성이 적다고 여기지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일반인들 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영성 개발”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는 특정한 행위보다는 “존재”에 가치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방언을 말하거나 신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성이 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교계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책을 저술하고 수만 명의 교인이 모이는 메가 처치의 목사인데 어느 날 섹스 스캔들이 들 통나서 강단을 떠나는 것을 보면 그는 그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것이며 그의 영성은 건전한 것이 못된다. 건전한 영성은 성령 충만으로 삶이 성령의 인도와 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성” (spirituality)이라고 말하면 많은 이들이 “신비성”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사막의 교부들”을 생각한다면, 예집트 사막에서 은둔자로 살면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환상으로 보거나 몽상 가운데 살던 자들이다. 현대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영성을 개발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실제적이지 못하다. 만일 그렇다면 인도의 힌두교 구루 (Guru) 가운데 여러 날 음식을

먹지 않아서 몸에 거의 뼈만 남은 사람이 가장 영성이 깊은 것처럼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평생 일하지 않고 거리에서 일종의 구걸을 하며 마치 점쟁이나 마술사처럼 행동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영성과 전혀 다르다.

영성 개발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인물들을 보면 Francis Assisi, Teresa of Avila, Thomas Merton, Madame Guyon, Ignatius of Loyola 등인데 대부분 로마 카톨릭의 신비주의자들이고 일부는 동방 정교 사람들이다. 근간에는 Richard Foster, Henri Nouwen, Dallas Willard, Leighton Ford, Eugene Peterson, Robert Mulholland 등이 있다.

필자는 이런 인물들을 모범으로 삼기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객관적인 영성에 관한 것에 보다 집중할 것이며,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건전한 영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티셔츠
 굿모닝
 머그컵 & 텀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에베소교회의 진단과 경고

요한계시록 2:1-7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중략)...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 에베소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슴앓이

본문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교회를 영적으로 진찰하신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장 18-20절에 보면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잠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왕래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촛불을 밝히시고, 그곳에 사자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불들려 쓰임 받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목적으로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가꾸시며 잘못된 것을 지적, 책망하시고 때로는 칭찬으로 장려하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 믿어지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한 구원과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가까이 목숨이라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다짐했던, 성령충만의 첫 사랑을 변함없이 계속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교회를 통하여 잠차 이 세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 순전하고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디옥이었는데, 이방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곳입니다. 바로 이 세 지역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불들어 쓰신 비중 있는 의미와 교훈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뜻은 ‘인내’입니다. 이 에베소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대단히 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희생과 은혜에 빛진 심령들로 구원 얻어 천국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이라도 바쳐 향기로 온 제물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보면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선한 행실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목적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것이 선한 행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수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육신이 부당되고 손해 보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견디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목적은 영적인 성과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이것은 본인뿐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천국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얻을 수 있도록 구원 얻게 하는 수고가 하나님 맘에 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하신 것은 악을 미워함으로 그 악한 사실을 드러내어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교회의 은혜 분위기를 해치고 목회자들을 비방, 대적하며, 양떼들을 실족시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교회는 교리에 굳건히 서있었다고 했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교의 신학(敎義神學)’이라고 합니다. 에베소교회는 교리가 정통한 교회로서 굳건히 세워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소망을 위한 질서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참으로 정통하고 온전한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드나들며 기대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명분과 입지를 위한 또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난 잘못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교

회를 향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책망하시며 경고하십니다.

3. 잃어버린 바 된 첫 사랑의 회복

먼저 서둘러 회개하라 하십니다. 육에 속한 생활에 잘못 변질되어 버린 신앙을 회개하고 영적인 가치 소망을 예수님께로 집중해서 다시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서두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절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했습니다. 가짜 신자가 전도를 해 오면 그 가짜 신자를 보고 교회를 다니다가는 배나 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만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있다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없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교회와 같이 우리들도 첫 사랑을 버리고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인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해서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되실 것이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살리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훗날 이 세상이 다 불타 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질 때, 그곳에서 영생하는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펙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 탈모
- 치질
- 갑상선
-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고막염,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뜰
- 옆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매끼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3)

본회퍼 “인간은 왜, 선과 악 중 악을 먼저 선택하는가?”

인식의 한계 지점에서 확인되는 선과 악의 가능성
헤겔 관념론 통해 자고하는 독단성과 교만을 목격
헛된 교만 속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 행위 접근조차 못하는 불행

◆신학과 인식: 칸트에 의해 해명된
인간의 두 가능성

인간 본성에 대한 본회퍼의 이해
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계
시 행위에 열려질 수 있는 선(善)의
가능태(potentiality)이고, 다른 하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자
기 내부의 고독으로 파고 들어가는
악(惡)의 가능태이다.

본회퍼에 의하면 이 두 가지 가능
성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
라 실제적인 개개인 안에 선형적으
로 주어져 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는 선의 가능태를 현실화하기 전에,
우선 악의 가능태를 현실화한다. 본
회퍼는 여기서 인간의 원죄적 죄성
을 발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고들어간다.

왜 인간은 선과 악의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실존하는데, 현
실에서는 먼저 항상 악의 가능태를
현실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수한 방식의
답변이 제기될 수 있다. 본회퍼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한 물음을 놓
고 우선 인간 인식의 실재를 파고든
다. 당시까지 인식론을 주도했던 것
은 철학 분과였다.

그리고 본회퍼 당대의 기독교 신
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철학
적 인식론과 존재론의 도전에 직면
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회퍼는 인간이 세계와 타자(他者)
를 인식하는 방법을 펼쳐낸다.

본회퍼가 지목한 근대 철학계의
총아(寵兒)는 칸트였다. 칸트의 주
관주의 선형론과 구성설은 인간 인
식의 특성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해 냈다.

칸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기본
적으로 주관적 직관을 근거로 인식
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주관주의).
그리고 감성의 직관, 지성의 종합,
그리고 이성의 추론으로 이어지는
인식의 과정 전체는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게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다
(선형론).

따라서 인간의 인식이란 물자체
에 그대로 대응하는 진리를 도출하
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지성이 물
자체를 직관하고서 스스로의 방식
대로 새롭게 구성해낸 대상을 만들
어내는 일로 밝혀진다(구성설).

그러므로 칸트는 감각적으로 만
나게 되는 세계와 타자 전체는 사
실상 완전한 인식이 절대로 불가능
한 비밀, 신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본회퍼는 물자체의 이 절대적인
불가지성을 피조물의 존재가 지닌
시간적 역동성을 통해 재차 논증한
다. 인간이 삶의 현실에서 체험하는
인간 자신과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있는 타자의 존재 전체는 시간

적이다. 다시 말해 한시도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한다.

그런데 운동과 변화는 곧 순간들
의 생성과 소멸인 동시에, 그 순간
들을 채우는 현상들의 생성과 소멸
이기도 하다. 즉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 존재하면서
사라져 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
토스(Heraclitus)는 이러한 존재적
원리를 “만물은 유전(流轉, flux)한
다”는 말로 집약해 설명했는데, 본
회퍼 또한 이러한 존재론적 깨달음
에 심분 동의하는 입장이다.

인간의 직관은 이렇게 생명이 교
차하는 역동적인 존재를 즉각적으
로 따라가지 못한다. 존재가 생기
(生起)한 직후 인간의 의식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표상으로 만들지만, 의
식이 그것을 표상으로 만들어놓은
그 순간에는 그 표상의 원본 실재인
존재는 이미 공허함 가운데로 들어
가 사라져 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
든 표상은 결코 세계와 사물 자체
의 존재를 그대로 포착해낸 것이 아
니라, 이미 사라져버린 순간적 존재
의 잔영(殘影)에 불과한 것으로 확
인된다.

◆신학과 실존: 악의 가능성으로 기
울어지는 삶의 현실

이렇게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로
둘러싸인 채 인간들만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인식을 구성해가
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인간이 가진 인식 능력의
한계를 수긍하고, 겸손하고 주의깊
게 세계와 타자를 맞이하는 길이다.
이는 인간 자신으로서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처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삶으로 이어진다.

강압과 폭력 없이 타자의 존재를
그 자체대로 보존하려는 윤리적 실
천 또한 자신의 무지에 대한 수긍
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가진 인식 능
력의 한계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서, 세계와 타자의 존재를 지적 대
상으로 변환한 뒤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길이다. 이는 인
간이 자기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이
외의 모든 존재를 자기가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지배와 독단의 삶으로 이어진다.

본회퍼는 칸트의 선형적 구성설
안에서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보았다. 그렇지만 칸트 이후 헤겔로
대표되는 독일 관념론으로 넘어오
면서, 독일 사상계는 이 두 가지 가
능성 가운데 유독 지배와 독단의 삶
을 신-인 관계의 핵심으로 부각시
킨다.

헤겔의 인간과 세계 이해는 정신
의 유한성을 출발점 삼는다. 다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세워진 본회퍼의 석상. ©historytoday.com 캡처

말해 헤라클레이토스와 칸트에 의
해 밝혀진 인간 인식의 빈약함과 한
계에 대한 수긍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헤겔은 여기에서 계몽
주의 특유의 낙관론을 가미했다. 인
간 의식 혹은 정신이, 결국에는 자
력으로 진리를 파악하고 절대선을
이루리라는 낙관론이 헤겔 정신현
상학을 관통한다.

헤겔식 지양의 변증법은 이 낙관
론이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
는 인간이해 방식이다. 헤겔은 인간
의 의식이 비록 과거에는 열등했고
진리에 전혀 다가갈 수 없는 한계
앞에 좌절하고 있었지만, 역사를 통
해 실현되는 정신의 변증법적 고양
을 통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절
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예
언했다.

본회퍼는 칸트의 인식적 한계 비
판이 헤겔의 독일 관념론에 의해 이
처럼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절
대 알지 못할 것을 마치 확실하게
알아낸 것처럼 자고하는 인간 의식
의 독단성과 교만을 목격한다.

인간이 자기 의식 바깥으로, 삶의
현실로 눈을 돌리는 즉시 깨닫고 말
게 될 스스로의 한계를 일부러 간과
한 채, 자기가 만들어낸 잔영을 진
리로 떠받들고 스스로를 진리의 근

거로 옹립하는 인간의 자기신격화
욕망을 간파해내고 있는 것이다.

본회퍼는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된
이런 헛된 교만의 심성을 루터의 진
단을 빌려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cor curvum in se)'이라고 명
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인간은 자기보다 크고, 위대하고,
온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 행위에 접근조차 못하는 불행
에 빠져 있다고 경고한다.

애초 의식 외부에 존재하는 피조
계와 그 안의 타자조차 제대로 돌아
보려 하지 않는, 독단적이고 폭력적
인 파악과 판단 행위로 가득한 인간
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피조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
를 온유하게 맞이해 들어려는 겸비
의 심성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
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
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
(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
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
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

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
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
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
를 하는 중이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
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
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형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
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
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Bricolage in
the Movie)란

브리콜라주(bricolage)란 프랑
스어로 '여러가지 일에 손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
한 예술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
주 사용된다.

브리콜라주 기법의 쉬운 예를 들
어보자.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
던 학창시절에는 두꺼운 골판지로
필통을 직접 만든 뒤, 그 위에 각자
의 관심사를 이루는 온갖 조각 사
진들(날렵한 스포츠카, 미인 여배
우, 스타 스포츠 선수 등)을 덧붙여
사용하는 유행이 있었다. 1990년
대에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쉽게 공감
할 것이다.



근대 철학계의 총아, 프로이센 출신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the-tls.co.uk 캡처



독일 관념론의 대표자, 게오르크 헤겔. ©thewisdomdaily.com 캡처



인간의 죄성을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으로 규정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vision.org 캡처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창의력부터 사고력까지

한국인과 유대인, 둘 다 교육열은 엄청난데 성취도는 왜 다를까

한국인 아이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지만 유대인 아이들은 질문과 토론으로 교육 '지혜의 시대', '교회의 교육도 바뀌어야'

미국 최대의 시사주간지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천재들의 비밀: 20세기를 조각한 3명의 위인'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호를 내놓은 적이 있다. 표지를 장식한 3명의 위인은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그리고 마르크스였다.

인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 세 명의 인물은 공교롭게 모두 유대인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이처럼 막강한 유대인 파워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세계 10대 부자 중 8명이 유대인이다. 세계 500대 기업 CEO의 41.5%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전체 노벨상 23% 이상(230개 수상)을 휩쓸었다. 우리나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이 전부다. 유대인은 고작 1,400만명의 인구로 하버대학교 재학생 30% 이상을 차지하고, 교수는 무려 40% 이상이다.

이런 믿기지 않는 유대인들의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유대 민족은 머리를 타고난 민족이 아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이 2002년 세계 185개 나라 국민들의 IQ를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국민들의 IQ는 95(26위)로 한국(106, 2위)이나 미국(98, 19위)보다 낮았다.

실리콘밸리의 유대인 국제번호사 앤드류 서터도 유대인의 성공법칙을 담은 책 《더 룰(The Rule)》에서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유전자나 생물학적인 특성이라고 간주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유대인 성공의 진짜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교육에 있다. 교육이라면 한국도 지지 않는다. 한국인과 유대인의 교육열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막강하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목숨을 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를 좋은 학교나 학원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유명 학원들이 몰려 있는 대치동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아내와 아이들은 해외 학교로 가고 아빠는 국내에서 홀로 생활하는 기러기 가정도 많다.

유대인 부모들과 유사하다. 미국에서 유대인 밀집 지역은 '좋은 학

군'이 형성되면서 집값이 비싸진다. 그런데 교육 성취도를 놓고 보면 유대 민족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 아이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지만, 유대인 아이들은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부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라고 묻지 않고, "오늘 선생님께서 무슨 질문을 했니?"라고 묻는다고 한다. 유대인 아이들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유대식 교육법을 하브루타라고 한다.

유대인의 하브루타는 체계적 공부 방법과 교재가 있다. 방법은 질문식 대화법이고, 교재는 탈무드와 토라이다. 덕분에 모든 유대인은 날마다 가정에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하브루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교사가 되어 또다시 하브루타로 학생을 가르친다. 《탈무드》 저자인 마빈 토케이어는 이렇게 말했다. "질문하라! 이것이 오천년 유대교육의 비밀이다."

그런데 유대식 하브루타가 한국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서원대학교 융복합대학 김정진 교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주말 부부라 지내며 점점 아들과 멀어지자 머리를 싸매고 부모 교육을 공부하다, 한국에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없음을 깨닫고 유대인 밥상머리 교육으로 알려진 하브루타를 시작했다.

하지만 온 가족을 불러 모아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탈무드로 하는 하브루타가 한국 사람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두 달 만에 포기했다.

아이들을 위해 직접 한국형 하브루타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5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 최초로 하브루타 앱 '지혜톡톡'을 개발하고, 'K-하브루타'를 완성했다. 그리고 《창의력부터 사고력까지 아이의 공부머리가 바뀌는 K-하브루타》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은 K-하브루타의 개요와 하브루타 앱인 '지혜톡톡'을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지혜 톡톡'은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자가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수많은 교육 실험과 무수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왔다.

저자는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서 아이와 지혜를 나누는 한국형 하브루타를 생각하고 몰입하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질문하고 대

화하며 토론하며 이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지혜 톡톡' 앱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혜 톡톡' 앱은 인성, 소통, 가정, 협력, 진로직업,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발견력, 미덕을 비롯한 AI 시대 가장 핵심적인 역량들이 1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카테고리에는 100개의 사진과 300개의 질문이 제시된다. 따로 질문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특히 진로직업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직업과 그에 관련된 영상도 수록해 놓아서, 아이들을 직업을 선택하는데 많은 유익이 된다.

K-하브루타김 교수는 이 책에서 15개의 카테고리에 대해 아이들과 나눈 대화와 그 활용법을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했다. 김 교수 부부와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눈 기록을 보면,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저자는 책 말미에서 부모가 학교와 학원은 바꿀 수 없어도, 가정은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가정에서 K-하브루타를 시작할 때, 학교와 학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친구와 경쟁을 하는 가여운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로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 이후 150여 년 만에 교육 대개혁을 선언했다. "현행 대입 시험(수능)을 폐지하고 2020년에는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한다!"

일본은 7년 동안 교육 개혁을 착실히 밀어붙인 결과, 2020년부터 국제 바칼로레아로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일본은 20세기에 요긴하게 써먹었던 주입식 교육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이다.

이제 일본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기반으로 대화와 토론을 한다. '대화의 장'으로 바뀐 교실에서 교사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가르

치지 않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얻도록 도와준다.

한국의 수능 시험은 일본의 대학 입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럼 이제 한국의 수능도 향후 몇 년 안에 쓰레기통으로 갈 것이다. 한국 교육도 수능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014년 미국에 미네르바 스쿨이 문을 열었다. 미네르바 스쿨의 수업은 모두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다만 수업 방식은 100% 토론식이다. 온라인 교수에게 강의를 듣고 온라인으로 토론한다.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치열한 토론을 이어간다.

학생들은 6개월마다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생활하며, 4년 동안 7개국을 돌아다닌다. 이처럼 혁신적인 교육을 실시한 미네르바 스쿨은 단숨에 신형 명문으로 떠올랐다. 미네르바 스쿨과 하버드대학교에 동시에 합격하면 다수의 학생들이 미네르바 스쿨을 선택할 정도라고 한다.

미네르바 스쿨에서 핵심으로 배우는 것은 '생각하기, 글쓰기, 토론하기'다.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세운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사립학교인 '에드 아스트라'의 모든 수업도 소크라테스 질문식 대화법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여령 교수는 지식의 시대가 가고 지혜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이제 한국교회의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 교육이 학교교육보다 앞서 갔다. 지금은 뒤쳐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유대인보다 더 좋은 교육재료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와 토라를 교재로 해서 하브루타를 하지만 한국교회는 탈무드와 신구약 성경, 김정진 교수가 개발한 '지혜 톡톡'을 교재로 하브루타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질문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질문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게 된다. 한국교회에도 한국교회형-하브루타가 만들어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해본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K-하브루타
김정진
쌤앤파커스 | 276쪽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부 저력과 지혜를 키우는 맞춤형 K-하브루타 탄생!

'기적의 밥상머리 교육'으로 12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CBS 세바시 명강의로 떠올랐던 하브루타 전문가 김정진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하브루타 앱 '지혜톡톡'을 개발하고 한국형 하브루타를 완성하여 책으로 펴냈다.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셀리온 CELLREON  유한양행 *NewOrigin*

www.cellreon.com | 213-738-8000